

제7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독립운동가 권기남께

안녕하세요? 전 일본의 수감 7년 당당히 독립투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김제민입니다.
권기남은 독립운동가 이세기도 하지만 나라나 조국의 여자 비행사 이세기도 합니다.
전 도서관에서 '하늘의 독립군 권기남'이란 책을 읽고 조금 아들도 하고 공부하기도 했어요.
여사독립이라면 규안은 정말 알고있고 같아요. 물론 규안은 독립운동가님도 훌륭하신분예요.
하지만 권기남도 훌륭하신것 같아요. 또, 더 알직 권기남에 대해 알려주게 아들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저가 할머니대에게 태어난다면 독립운동은 못할것 같아요. 신일은 훌륭하지만 독립운동은
위해서 죽은것 같아요. 그런것에서 모든 독립운동가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된 비행편을
이겨내고 나라나 조국의 여자 비행사가 되고, 1층에는 나라를 독립을 위해 사투이신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또 '여자는 안된다' 라는 편견을 절망과 끈기로 깨트리고 당당히 비행사가 되신게
정말 멋져요. 사실들은 많이없어졌다면 예쁜향한 편견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저처럼은 드래질어요. 그런데 어떤사람들은 드래질하면 무고한 양산하고 기생럽다고 편견을 가지고
이여켜요. 드래질은 하는게는 전혀 양전하지 않는데 말예요. 신 그렇게 부름있으면
"아니요, 저 드래질하는데 양전 잘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것에서 '여자는 비행기승사가 못돼'란 편견을 깨트리고
꿈을 이루어낸 권기남이 자랑스러워요. 또, '꿈이
없으면 공상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